

『素問·玉機眞藏論』의 病傳에 대한 考察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方正均*

對於『素問·玉機眞藏論』의 病傳之 考察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方正均

在『素問·玉機眞藏論』中, 有關於病之傳變的內容. 然其內容難解, 且注家的解釋相異, 說明也不夠充分, 所以不易理解. 所以此其內容需要整理, 若夫著論者的見解如下.

氣之逆行是可以審兩個方面. 其一是, 出於相克關係的一般傳變規律, 先傳於母藏而後再從母藏傳以相克關係. 且至於死的時點, 反爲本藏之勝克的關係, 這就是出於一般的規律. 其二是, 有續發性疾患的義, 可謂以病的程度危重爲逆行矣.

其外感病是, 邪氣由於形(表)而入於藏(裏), 然後在五藏內, 以肺合皮毛, 故肺先受邪氣, 而後自肺傳以相克關係.

其卒發病是, 於內傷或外感的病因, 附加眞元脫竭的內在原因而發病, 又加以七情傷, 所以不隨一般傳變規律, 而且病的程度更甚危重矣.

Key Words : 氣之逆行, 外感病, 卒發病, 眞元脫竭

I. 緒論

『素問·玉機眞藏論』은 주로 四時脈과 眞藏脈 등 脈과 관련된 내용과 形·氣·色·脈의 診斷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서술하고 있다¹⁾. 그러나, 診斷法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 病의 傳變과 관련된 내용도 중요하게 서술되어 있다. 본 편에서 제기한 病의 전변은 『黃帝內經』의 다른 곳에서 설명한 일반적인 病의 전변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氣之逆行·卒發病의 경우는 주가들의 해석이 相異

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각 주가들의 주장을 정리해보고, 논자의 견해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本論

「玉機眞藏論」에 서술된 病의 前變 내용 가운데 氣之力行·外感病·卒發病 등 3가지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氣之逆行

「玉機眞藏論」에서는 五藏이 자신이 生하는 子의 藏에서 病氣를 받아 發病이 되면, 克하는 곳으

* 교신저자: 方正均,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033) 730 -0666, bjkdcw@sangji.ac.kr

1) 山東中醫學院·河北醫學院 校釋, 黃帝內經素問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 260.

로 병이 傳變되다가 자신을 克하는 藏에 이르러 죽게되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를 氣가 逆行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五藏受氣於其所生, 傳之於其所勝, 氣舍於其所生, 死於其所不勝. 病之且死, 必先傳行, 至其所不勝, 病乃死. 此言氣之逆行也, 故死.(五藏은 그 생하는 바의 藏에서 病氣를 받아 그 이기는 바의 藏으로 傳하고, 그 생하게 해주는 藏에서 病氣를 머물게 하다가 그 이기지 못하는 바의 藏에서 죽게됩니다. 병들어서 장차 죽음에 반드시 먼저 傳하여 운행하다가 그 이기지 못하는 藏에 이르러 병들어 죽습니다. 이는 氣가 逆行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죽는다고 말한 것입니다.)²⁾

이 문장에 대해 박찬국은 內傷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바³⁾, 위에서 제시한 문장의 뒤에 五藏病의 傳變을 제시하면서 “肝受氣於心”이라고 하여 肝이 병드는 것을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서 언급한 “氣之逆行”에 대해서는 주가들마다 相異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첫째, 氣의 逆行에 대해 王冰은 “所傳不順, 故必死焉”⁴⁾이라고 하여,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病의 傳變이 五藏의 相克관계로 傳變되는 것을 逆行으로 인식한 馬蒔⁵⁾와 五藏의 기운이 相生의 이치에 따라 순조롭게 운행하지 못하고 그 운행을 거스르는 것을 逆行이라고 인식한 박찬국⁶⁾의 주장을 연계하여 이해하면, 相生의 生理 상태를 벗어난 五藏의 病理的 상태를 逆行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둘째, 吳崑은 五藏이 順行하면 살고 逆行하면 죽는다고 전제를 하면서,

病氣를 자신이 생하는 子에 해당되는 藏에서 받는 것을 逆行으로 인식하고 있다⁷⁾. 張志聰도 吳崑의 견해를 따르면서 「玉機眞藏論」의 본문에 제시된 “神轉不廻, 廻則不轉”⁸⁾의 문장을 인용하면서 母行 乘子하는 경우를 神轉不廻한 것으로 順行으로 인식하고, 子行 乘母하는 경우를 廻則不轉한 것으로 逆行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⁹⁾. 셋째, 張介賓은 “不勝則逆, 故曰逆行, 逆則當死.”¹⁰⁾라고 하였는데, 그 의미가 명확하지 못하다. 이에 대해 胡天雄은 氣의 逆行을 “神轉不廻, 廻則不轉”의 “廻”로 인식하면서 氣의 逆行으로 인해 神廻不轉 상태에 이르러 生氣之機를 상실하기 때문에 죽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¹¹⁾. 이러한 주장은 일면 王冰·馬蒔·박찬국의 주장과 같이 相生의 生理 상태를 벗어난 것을 逆行으로 인식하는 것과 같은 견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不勝”을 逆으로 인식한 것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病의 傳變의 마지막 단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질병 傳變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本藏을 克하는 관계이니, 이것을 不勝으로 이해하면서 逆行으로 설명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氣之逆行에 대한 역대 주가들의 주장은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이상의 주장에서 五藏의 相生 관계를 벗어난 것을 逆行으로 보는 주장과, 나를 克하는 때에 죽게되는 것을 逆行으로 보는 주장은 질병의 일반적인 傳變을 모두 逆行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라는

2)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p. 73.
3) 朴贊國, 懸吐國譯 黃帝內經素問注釋. 서울, 集文堂, 2005, p. 83.
4) 郭霽春 外 5人 編,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 72.
5)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 148-149.
“蓋凡病之至死, 必先傳之, 至其所不勝而死. 此皆五藏相克, 乃爲氣之逆行也, 故至于死.”
6) 朴贊國, 懸吐國譯 黃帝內經素問注釋. 서울, 集文堂, 2005, p. 81.

7) 吳崑, 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1, p. 5.
“五藏順行則生, 五藏逆行則死, 上文受氣于其所生, 是母反受氣于其子, 故爲逆爲死.”
8)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p. 73.
9) 張志聰, 黃帝內經素問集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2, p. 181.
“此言五藏之氣逆回, 失其旋轉之機而死也. 平脈篇曰, 水行乘金, 火行乘木, 名曰逆. 金行乘木, 木行乘火, 名曰順. 蓋神轉而不回者, 母行乘子也. 回則不轉者, 子行乘母也. 五藏受氣于所生之子, 而反舍氣于所生之母, 是生氣之逆行也. 傳之于其所勝, 是克賊相傳也, 是以至其所不勝而死. 此皆氣之逆行故也.”
10) 張介賓, 類經. 서울, 一中社, 1992, p. 81.
11) 胡天雄, 素問補識.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1, p. 141.
“氣之逆行就是廻, …… 凡人之發病傳行以至于死, 皆因氣之逆行, 以致神廻不轉, 失其生氣之機使然也.”

의문을 유발한다. 즉, 모든 질병은 생리적 상태를 벗어나기 마련이므로 相生의 규율을 유지하기가 힘들고, 또한 나를 克하는 상황에 질병이 가중되어 위태롭거나 죽음에 이르는 것은 일반적인 병리 과정으로 이를 逆行이라고 명기할 필요성은 없는 것이다. 오히려 본문의 逆行은 일반적인 傳變 규율을 따르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吳崑과 張志聰은 내가 生하는 곳에서 病氣를 받는 것을 逆行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니, 이들의 주장이 逆行의 의미와 부합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자식이 부모의 氣를 泄하여 병이 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므로 逆行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한다고 볼 수는 없다.

논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2가지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첫째, 질병의 발생 원인이 內傷이든 外感이든 관계없이 특정 부위와 藏이 문제가 생겨 질병이 발생하면, 三陰三陽의 傳變체계를 거치는지 相克의 순서대로 傳變체계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병의 傳變체계이다. 그러나 본문에서 제시한 것은 질병이 발생한 藏에서 相克의 순서대로 傳變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生한 母의 藏으로 病氣가 傳해진 후 相克의 순서로 傳變하게 되고, 또한 죽게되는 시점은 母의 藏을 克하는 관계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죽게되는 시점은 병이 발생한 本藏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내가 克하는 관계가 되어 버린다. 이렇게 볼 때 本篇에서 제시한 氣之逆行은 일반적인 傳變체계를 따르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續發性 질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미 子에 해당되는 藏에 병이 발생한 상태에서 母의 藏에 이상이 생겨 子의 병이 母의 병에 합해져 母의 藏을 중심으로 相克의 관계로 傳變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다만 하나의 藏이 이상이 생겨 발생한 질병의 상태보다 그 발병의 정도가 위중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바, 본문의 逆行은 질병의 정도가 위중함을 뜻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도 있는 것이다.

2. 外感病의 傳變

『玉機眞藏論』에서는 風寒邪가 인체를 침범한 경우 體表를 경유하여 五藏으로 入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으니 다음과 같다.

是故風者, 百病之長也. 今風寒客於人, 使人毫毛畢直, 皮膚閉而爲熱, 當是之時, 可汗而發也. 或痺不仁腫痛, 當是之時, 可湯熨, 及火灸刺而去之. 弗治, 病入客於肺, 名曰肺痺, 發咳上氣, 弗治, 肺即傳而行之肝, 病名曰肝痺, 一名曰厥, 脇痛出食, 當是之時, 可按若刺耳. 弗治, 肝傳之脾, 病名曰脾風, 發瘧, 腹中熱, 煩心, 出黃, 當是之時, 可按, 可藥, 可浴. 弗治, 脾傳之腎, 病名曰疝瘕, 少腹冤熱而痛, 出白, 一名曰蠱, 當此之時, 可按, 可藥. 弗治, 腎傳之心, 病筋脈相引而急, 病名曰瘰, 當此之時, 可灸, 可藥. 弗治, 滿十日, 法當死.(이러한 까닭으로 風은 百病의 우두머리이니, 지금 風寒이 사람에게 침입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솜털까지 다 곤두서게 하고 피부로 하여금 닫히게 하여 熱이 나게 하니, 이때에는 땀을 내서 발산시킬 수 있고, 혹 痺, 不仁, 腫痛이 나타나 이때에는 湯熨 및 火灸刺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치료하지 않아서 병이 肺에 들어가 머무르면 이름이 肺痺이니 기침을 하고 上氣하며, 치료하지 않아서 肺가 곧 전하여 行하여 肝으로 가면 병명이 곧 肝痺이고 일명 厥이니, 옆구리가 아프면서 음식을 토하니, 이때에는 안마를 하거나 침을 놓을 수 있습니다. 치료하지 않아서 肝이 傳하여 脾에 이르면 병명이 곧 脾風이니, 瘧을 일으켜서 뱃속에 열이 나고 가슴이 괴로우며 노란 소변이 나오니, 이때에는 안마, 약 및 목욕으로 치료할 수 있으며, 치료하지 않아서 脾가 傳하여 腎에 이르면 병명이 곧 疝瘕이니 아랫배가 답답하고 열이 나면서 아프고 희뿌연 소변을 보니 일명 蠱입니다. 이러한 때를 당해서는 안마와 약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치료하지 않아서 腎이 傳하여 心으로 가 筋과 脈이 서로 당기면서 긴장되면 병명이 곧 瘰이니, 이러한 때를 당해서는 灸와 약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십일을 채우고서 죽게 됩니다.)¹²⁾

1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p. 74.

이 문장에 대해 모든 의가들이 外感病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병의 傳變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먼저 王冰은 전체적인 틀을 風寒의 邪氣가 陽인 形에 있는 경우와 陰인 藏으로 입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¹³⁾. 이에 비해 吳崑은 좀더 구체적으로 陽인 形의 경우를 衛氣와 血이 손상되는 것으로 설명하였고, 아울러 사기가 五藏으로入하는 과정에서 肺가 먼저 사기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肺合皮毛”의 이론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¹⁴⁾. 張介賓의 경우도 吳崑과 유사한 주장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기의 침입 경로를 皮膚(發熱) → 經絡(痺不仁腫痛) → 五藏으로 명확하게 제시하였으며, 五藏에서 肺가 먼저 사기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吳崑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¹⁵⁾.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주가들은 본문에 대해 風寒의 外邪가 인체를 침범함에 있어 陽(表)인 形을 경유하여 陰(裏)인 藏으로 들어오는 傳變경로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오장 가운데 肺가 사기를 가장 먼저 받는 데 있어서는 肺合皮毛의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3. 卒發者, 不以次入

「玉機眞藏論」에서는 病의 傳變이 相克관계로 진행되는 것 이외에, 또다시 傳變 규율에서 벗어

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然其卒發者, 不必治於傳, 或其傳化有不以次, 不以次入者, 憂恐悲喜怒, 令不得以其次, 故令人有大病矣. 因而喜, 大虛則腎氣乘矣, 怒則肝氣乘矣, 悲則肺氣乘矣, 恐則脾氣乘矣, 憂則心氣乘矣, 此其道也. 故病有五, 五五二十五變, 及其傳化. 傳, 乘之名也. (그러나 그 갑자기 발생한 것은, 傳하는 것에 반드시 법칙대로 하지 않고, 혹 그 전해 변화하는 것이 차례대로 하지 않는 것이 있고, 차례대로 들이지 않은 것이 있으니, 憂, 恐, 悲, 喜, 怒가 그 법칙에 따른 차례로써 전할 수 없게 하므로 사람에게 큰 병을 앓게 합니다.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기뻐해서 크게 허약해지면 腎氣가 타고 오르고, 성을 내면 肝氣가 타고 오르고, 슬퍼하면 肺氣가 타고 오르고, 두려워하면 脾氣가 타고 오르고, 우울해하면 心氣가 타고 오르니, 이는 그 법도입니다. 그러므로 병이 다섯 가지가 있음에 五五의 二十五 가지 變故 및 그 傳化가 있습니다. 傳은 타고 오름의 이름입니다.)¹⁶⁾

이 문장에 대해 王冰은 “卒發”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석이 없이 “不以次入”에 대해서 七情傷의 경우는 손상되는 부위가 일정한 곳이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¹⁷⁾, 吳崑¹⁸⁾과 張介賓¹⁹⁾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馬蒔도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다만 卒發의 해석을 五志가 갑작스럽게 손상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²⁰⁾. 이에 비해 高士宗은

13) 郭霽春 外 5人 編,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 274-275.
“客, 謂客止於人形也. 風擊皮膚, 寒勝腠理, 故毫毛畢直, 玄付閉密而熱生也. …… 邪入諸陰, 則病而爲痺, 故入於肺, 名曰痺焉.”
14) 吳崑, 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1, p. 96.
“皮膚者, 衛氣所居, 陽之分也, 風爲陽邪, 皮膚受風, 是爲重陽, 故令發熱, 寒爲陰邪, 皮膚受寒, 則衛外之陽無所施泄, 亦拂鬱爲熱也. …… 風寒傷血則腫, 傷氣則痛, 所謂氣傷痛, 形傷腫也. …… 皮毛爲肺之合, 故弗治則邪入舍於肺, 名曰肺痺.”
15) 張介賓, 類經, 서울, 一中社, 1992, p. 472.
“風寒客于皮膚, 則腠理閉密, 故毫毛盡直, 寒束于外, 則陽氣無所疏泄, 故鬱而爲熱, 斯時也, 寒邪初中在表, 故可取汗而愈, 邪在皮毛, 不亟去之, 則入于經絡, 故或爲諸痺, 或爲不仁, 或爲腫痛, 故當用湯熨灸刺之法, 以去經絡之病, 風寒自表入藏, 必先于肺, 蓋肺合皮毛, 爲藏之長也.”

16)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p. 74.
17) 郭霽春 外 5人 編,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 277.
“憂恐悲喜怒, 發無常分, 觸遇則發, 故令病氣亦不次而生.”
18) 吳崑, 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1, p. 97.
“言其倉卒即發者, 隨經爲患, 不以次而入, 亦不必依次治其相傳也. …… 五志之發無常, 故病亦不以次.”
19) 張介賓, 類經, 서울, 一中社, 1992, p. 473.
“病有發于倉卒者, 隨氣爲患, 不以次而入, 亦不必依次以治其傳, 此又于逆傳順傳之外, 而復有不次相乘者矣, 五志之發無常, 隨觸而動, 故生病亦不以其次.”
20)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 152.
“此言病有卒時暴發而爲大病者, 不必依次而入, 故不必治其相傳之次也, 上文所言者, 乃傳化以次, 此則不以其次, 因一時

卒發에 대해서 肺에 病이 들어 寒熱의 증상이 갑자기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 원인을 外邪의 暴至로 설명하고 있다²¹⁾. 姚止菴도 高士宗과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外邪에 暴感된 것에 “眞元脫竭”의 상태를 病因으로 제시하면서 傷寒의 直中·中風의 眩仆·雜病의 厥逆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있다²²⁾.

이상의 주장을 살펴보면 王冰·馬蒔·吳崑·張介賓 등은 본 구절의 내용을 內傷으로 이해한 것이고, 高士宗은 갑작스런 外感으로 이해하고 있다. 한편, 姚止菴은 暴感外邪와 眞元脫竭을 病因으로 제시하여 外感和 內傷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王冰 등이 주장한 內傷의 근거는 卒發이라는 표현 뒤에 憂恐悲喜怒의 七情傷과 관련된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인데, 이러한 주장은 卒發의 의미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고, 더욱이 大病에 대한 설명이 생략된 것이다. 한편, 高士宗의 경우처럼 外感의 暴至를 病因으로 볼 경우 卒發에 대한 설명은 할 수 있지만, 뒤 구절의 七情傷의 내용은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논자는 姚止菴의 설명을 기초로 하여 논의를 확대해 보고자 한다.

이 문장을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인식할 부분은 “卒發”·“不以次入”·“因而喜”의 구절이라고 할 수 있다. 卒發의 의미는 일반적인 內傷이나 外感의 발병과는 양태를 달리하는 것으로, 그 病因이 五志驟傷의 內傷과 外邪暴至의 外感의 2가지 경우가 모두 가능하다. 다만, 내재적인 원인으로 眞元脫竭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본문에서 七情傷에 의해 大病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七情傷이 모두 大病이 될 수는 없기 때문

이다. 즉, 五志驟傷 혹은 外邪暴至와 眞元脫竭의 상태가 함께 病因으로 작용되어 病이 卒發된 상태에, 다시 七情傷이 加해 짐으로 인해 大病이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卒發을 이해할 경우 “不以次入”과 “因而喜”의 “因”字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不以次入의 경우, 이는 병이 傳變 五藏에서 벗어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즉, 內傷의 경우 相克관계로 병이 傳變되고 外感의 경우 形(表)에서 藏(裏)으로 傳變된 뒤 五藏內에서는 肺에서부터 相克관계로 병이 傳變되는 五藏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본 문장은 眞氣가 고갈된 위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다시 七情에 손상되어 하나의 藏이 병이 들면 기타 다른 4개의 藏으로 傳變은 되지만, 傳變의 五藏은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 因字의 경우는 喜뿐만 아니라 뒤에 제시된 怒悲恐憂에도 공통적으로 걸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因의 의미는 五志驟傷 혹은 外邪暴至와 眞元の 虛脫로 인해 이미 병이 든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고, 여기에 다시 七情傷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III. 結 論

『素問·玉機眞藏論』에서는 病의 傳變에 있어 氣之逆行·外感病·卒發病 등 3가지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氣之逆行에 대한 醫家들의 견해는 3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병의 전변이 相生의 생리 상태를 벗어난 것을 逆行이라고 하였고, 둘째는 子에 해당되는 藏에서 病氣를 받는 것을 逆行이라고 하였고, 셋째는 傳變의 마지막 단계가 不勝의 관계가 되는 것을 逆行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逆行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으므로 다음의 2가지 추론을 설정해 볼 수 있다. 첫째, 일반적인 傳變 五藏에서 벗어나 본 藏이 병이 든 상태에서 바로 相克의 순서대로 병이 전변되지 않고 母藏으로 전변 되었다가 母藏을 기준으로 相克의 순서로 전변하는 것이다. 마지막

五志驟傷, 使人不得以其次也.”

21) 高士宗, 黃帝內經素問直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1, p. 140. “肺病發寒熱, 然其寒熱猝發者, 乃外邪暴至, 不必治其傳, 言不必以心藏傳肺之法, 而治之也. 上文腎因傳心, 心復傳肺, 此病之次也. 或其傳化有不以次, 所以不以次入者, 乃憂恐悲喜怒, 五志內傷, 令不得以其次, 故令人有 大病矣.”

22) 姚止菴, 素問經注節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74. “以勝相傳, 則有次第之可數. 若夫猝然而起, 或暴感外邪, 或眞元脫竭, 病雖有因, 實非傳來, 如傷寒之直中, 中風之眩仆, 雜病厥逆之類, 但當考其致病之由, 不必泥于相傳之次論治也.”

에 죽게 되는 시점은 母藏의 입장에서는 不勝하는 藏이지만, 本藏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克하는 대상이 되므로 죽는 시점도 일반적인 규율에서 벗어나다. 이와 같이 병의 전변과 죽는 시점이 일반적인 규율에서 벗어난 것을 逆行이라고 본 것이다. 둘째, 續發性 질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本藏이 병든 상태에서 母藏에 이상이 생겨 子의 病이 母에 합쳐지는 것으로, 이 경우 질병의 정도가 위중할 수 있으니, 병의 정도가 위중한 상태를 逆行으로 인식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한편, 外感病에 대해서는 風寒邪의 전변 경로가 陽(表)인 形을 경유하여 陰(裏)인 藏으로 들어오고, 五藏內에서는 肺合皮毛하므로 가장 먼저 肺로 邪氣가 전해진 후 相克의 순서로 병이 전변된다.

마지막으로 卒發病의 경우는 內傷 혹은 外感의 病因에 眞氣 虛脫이라는 내재적 원인이 부가되어 병이 발생한 상태에서 다시 七情傷이 加해진 것으로, 이 경우는 일반적인 전변의 규율을 따르지 않고, 또한 그 병의 정도가 매우 위중하게 된다.

IV. 參考文獻

1. 朴贊國. 懸吐國譯 黃帝內經素問注釋. 서울. 集文堂. 2005.
2. 張志聰. 黃帝內經素問集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2.
3. 高士宗. 黃帝內經素問直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1.
4. 吳崑. 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1.
5.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6. 郭霽春 外 5人.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7. 山東中醫學院·河北醫學院. 黃帝內經素問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8. 張介賓. 類經. 서울. 一中社. 1992.
9. 胡天雄. 素問補識.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1.

10.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11. 姚止菴. 素問經注節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